

육계 꼭 자조금

2010. 4

자조금소식 전국 육계인 대회, 계열화사업 재정립 공감

질병관리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SI 재발방지

닭이야기 전통 꼭두닭 등 세계 닭 문화를 한눈에



본 정보지는 육계자조금으로 제작되어
전국의 모든 육계농가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올해 육계자조금 사업 소비홍보 및 교육 사업에 역점 2010년 제1차 대의원회, 20억5천만원 예산 확정

올해 육계자조금 사업은 소비홍보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에 역점을 두고 대국민 소비홍보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동)는 지난 3월 25일 대전 농협유통센터에서 2010년 제1차 육계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10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은 총 20억5천만원(농가거출금 10억, 정부지원금 10억, 2009년도 이월금 5천만원)으로 이 중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9억2천만원(44.9%), 소비홍보사업에 5억5천만원(24.6%), 조사연구사업에 3억원(14.6%)을 각각 배정,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은 지난해 성과가 부족했다는 판단에 의해 작년 보다 2억6천500만을 증액시키고 생산농가의 자질 향상과 생산자 및 소비자 정보제공, 자조금 거출 활동 홍보에 힘을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되지 않았던 소비홍보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24.6%를 배정하고 IPTV를 중심으로 하는 TV광고와 '닭

고기 먹는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연구사업에는 전체 예산에서 14.6%를 책정하고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연구개발(R&D) 분야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AI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농가수익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징수수수료에 5천만원(2.4%), 운영비 1억원(4.9%), 예비비에는 1억7천500만원(8.5%)을 각각 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 있었던 2009년도 제2차 대의원회 의사록을 접수하고 2009년도 육계자조금사업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후 2009년 육계자조금조성 및 사업추진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결사항에서는 2009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서와 2010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한편 기타사항에서는 지난해 감사로 위촉되었던 심순택 대의원이 감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인 감사직에 충남의 방진우 대의원을 새롭게 위촉하였다.





전국 육계인 대회, 계열화사업 재정립 공감

1천500여 농가 참가... 육계산업 현안 집중 토론

육계자조금 · 4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주최로 지난 4월 16~17일 양일간 전남 남원 지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전국 육계인 대회는 참여인원이 1천500여명에 이르는 등 육계농가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되었으며, 계열화 사업 재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농가와 계열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육계인 대회를 통해 우리 육계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의 주재로 현재 계열업체 위주의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육계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육계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계열업체에서 지급되는 사육비 등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사업영역만 확장하려는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영 씨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병아리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 말하면서 병아리 이력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한병권 이사도 “농가들이 계열업체들과 맺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 회사마다 다르다”며 표준계약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영근 씨는 “현재 농가들이 병아리를 사고 싶어도 병아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키울 수 없는 실정”이고 “일반 유통의 마미도 인해 닭을 키워도 유통시킬 사람이 없다”며 일반 사육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언급했다.

방진우 씨는 “남쪽지방 농가들은 현재 15년 전보다도 못한 사육조건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육계사육비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오세진 씨는 미국의 육계 농가를 직접 다녀온 경험을 살려 미국의 계열화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 계열화 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계열화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홍재 위원장은 자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농가들의 의식 전환을 강조하며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육계농가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조금 뿐”이라 말하고 다른 축종에 비해 거출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육계자조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갑 종계부화 분과위원장도 계육협회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육계자조금문제에 대해 “농가 개개인이 이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히면서 “농가들이 힘을 합쳐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열업체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국록 씨는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닭을 하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조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병아리 품질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연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토론회 앞서 가족위생 방역지원본부 배상호 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을 설명하였으며, 메리알코리아 정찬이 수의사는 ‘방역과 면역억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발표에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육계농가들의 생산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예방을 위해 정부와 농가들이 힘을 합쳐 방역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육계인의 생존전략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육계자조금 필요성 대부분 공감, 향후 참여의지 높아

대한양계협회,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 적극 홍보나서야

우리나라 육계농가 대부분이 자조금의 필요성과 자조금을 통한 국산 닭고기 소비홍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자조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자조금이 농가의 지위향상과 소득 증대에 큰 혜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조금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국대학교 식품자원환경경제학과 김정주 교수팀이 대한양계협회의 '성공적인 육계자조금 사업 연구' 를 위해 육계농가 2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한 육계농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육계자조금 제도에 대해 28.4%만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략 알고 있는 수준'은 29.4%였으며 '알고는 있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7.7%, '잘 모르고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11.1%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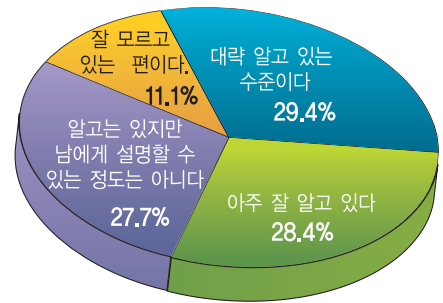
또한 육계자조금 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7.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7.0%로 85%가량이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그저 그렇다' 7.6%,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조금을 통한 국산 닭고기 소비홍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필요하다' 41.9%,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5.2%로 10명 중 9명 가량은 닭고기 소비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저 그렇다' 6.9%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8%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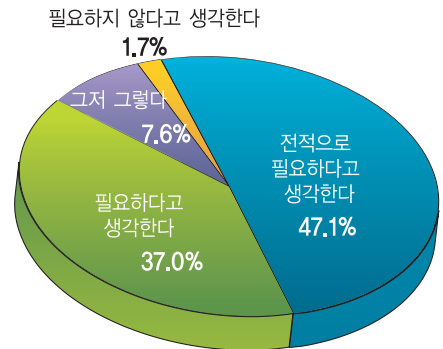
현재 육계자조금사업 참여 여부는 '참여하고 있다' 67.8%, '참여하지 않고 있다' 29.8%였으나 육계자조금 사업 향후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86.2%인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1%로 낮게 조사됐다.

한편 육계자조금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직 자조금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농가가 29.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부담' 22.0%, '닭고기 소비촉진은 가공업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19.8%, '농가교육은 정부나 농협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11.6%, '소속된 계열회사가 나의 자조금 사업 참여를 꺼려할 것 같아서' 10.5% 등으로 집계됐다.

육계자조금 제도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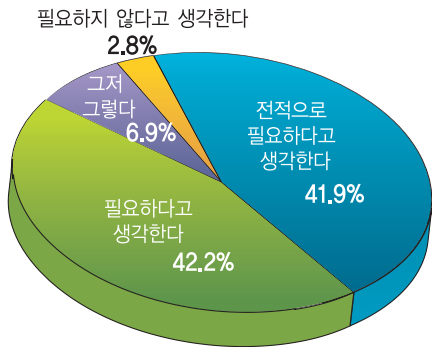
육계자조금 제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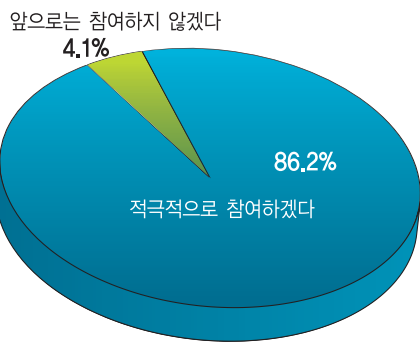
자조금이 육계농가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육계 사육농가의 지위향상 측면은 '혜택 있음' 49.8%, '중간 정도' 17.0%, '혜택 없음' 13.5%이었으며 육계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 측면은 '혜택 있음' 43.2%, '중간 정도' 21.8%, '혜택 없음' 15.6%로 농가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농가가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계자조금과 종계관련업자의 수익증대와 관련해서는 '혜택 있음' 29.7%, '중간 정도' 21.8%, '혜택 없음' 11.1%였으며 육계 계열업체에게는 '혜택 있음' 52.4%, '중간 정도' 13.8%, '혜택 없음' 6.5%로 오히려 육계자조금이 육계농가보다 육계계열업체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더욱 많았다. 또한 도소매 유통업체의 수익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항목에는 '혜'

자조금을 통한 국산 닭고기 소비홍보 필요성



육계자조금 사업 향후 참여의사



‘해택 있음’ 39.4%, ‘중간 정도’ 19.4%, ‘해택 없음’ 11.4%였으며 사료업체의 수익 증대 측면에서는 ‘해택 있음’ 26.3%, ‘중간 정도’ 21.1%, ‘해택 없음’ 18.7%로 집계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농가들은 자조금의 혜택이 농가보다 계열회사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계열회사가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것이란데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본다’ 54.6%, ‘반신반의한다’ 17.0%, ‘모두 참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14.9%로 다소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육계 1수당 3원씩 거출하는 자조금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당한 금액이다’ 56.5%, ‘많은 금액이다’ 24.2%, ‘적은 금액이다’ 5.8%로 조사됐으며 육계자조금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2월 이상 3월 미만’ 16.3%, ‘4월 이상’ 5.5%, ‘1월 이상 2월 미만’ 4.8%였으며 무응답은 71.7%였다.

육계자조금 정부 지원에 대한 생각으로는 ‘적절하다’ 48.4%, ‘100%보다 많아야 한다’ 24.6%, ‘잘 모르겠다’ 1.7%, ‘그것도 감지되지 않다’ 9.0%였으며 육계자조금 사용자 배분비율(평균)로는 ‘닭

고기 소비홍보’ 37.2%, ‘사육농가 교육 및 정보제공’ 26.9%, ‘조사연구개발’ 21.6%, ‘자조금운 영관리’ 14.3%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은 50대가 43.9%로 가장 많았고 40대 23.9%, 60대 18.0%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경영형태는 계열화 경영 72.7%, 단독경영 14.2%, 필요할 때마다 단독경영과 계열화 경영을 바꾸는 형태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경력은 10년 미만 23.5%, 20년 이상 30년 미만 23.5%, 10년 이상 15년 미만 22.5%였으며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육계자조금사업에 대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계자조금 사업 필요성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74.5%로 반대한다는 응답 4.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육계자조금 사업 인식여부도 ‘알고 있다’는 응답(55.3%)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40.2%)보다 높았다.

객관식으로 조사된 ‘육계 자조금 소비촉진 홍보활동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품질 좋은 국내산 닭고기를 적극적으로 홍보, 위생품질 연구 개발 부분에 지원을 한다면 육계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임’, ‘영세 양계 농민 보호 육성책’, ‘수입산 보다 국내산이 육질과 맛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정부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육계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등을 지적했고 ‘육계자조금 소비촉진 홍보활동 반대 이유’로는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될까봐서’, ‘현재 성립되어 있는 각종 조합의 성격상 일부 기존의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신생 조합의 설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수반하므로 농협 등 기존 국가기관의 관리하에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거 국산 닭고기 우수성에 대한 광고를 청취하거나 시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2.2%가 ‘있다’고 응답했고 19.2%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18.6%가 ‘없다’고 답했다.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매체로는 ‘TV광고 및 홈쇼핑’ 35.0%, ‘신문’ 19.4%, ‘라디오’ 15.7%, ‘지하철 내 광고’ 14.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닭고기 소비촉진 이미지 접근방법(모델 기용)으로는 ‘건강한 체육인’이 26.3%로 가장 높았고 ‘깜찍한 연예인’ 19.5%, ‘닭고기 전문가’ 17.7%, ‘사회저명 인사’ 11.3% 등이 뒤를 이었다.

계육협회의 “육계 자조금은 불필요” 문건 내용 요약

1. 육계자조금이 필요치 않은 이유

가. 성숙단계에 이른 육계산업

- 자조금은 규모화 조직화하지 못한 산업의 초기단계에서 생산농가의 권익과 소비촉진 등 시장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제도임. 우리나라 육계산업은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타 품목과 달리 생산, 가공, 유통이 계열화한 선진형 산업구조로 이행된 상태임 : 사육, 가공, 유통을 통합경영하는 계열화 체계가 구축되어 생산자의 85% 이상이 참여
- 선진구조로 성숙단계에 이른 우리나라 육계산업에 자조금을 도입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단계를 후진형으로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 : 산업의 미성숙 단계에서는 자조금이 시장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성숙한 이후의 자조금은 과보호의 부작용으로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 OECD 국가 중 육계 자조금을 운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운용하는 경우에도 해외시장 개척 등에만 활용

나. 자조금 조성 및 운용 목적의 달성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

〈제조(목적)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목적은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축산업자의 권익보호 : 시장교섭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계열주체에 의해 시장 변화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되고 소득이 안정화 됨으로써 생산농가의 권익 신장
- 소비자의 권익보호 : 계열 주체간의 브랜드 중심의 품질 및 가격 경쟁, 축산물 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등의 엄격한 적용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식품안전성 등 소비자 권익이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보호
-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 육계산업의 계열화가 도입됨으로써 계약생산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1980년대 2억마리 정도였던 국내 닭고기 소비량이 2009년 현재 6억마리로 성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 전망
- 자조금 운용 사업을 계열화 주체 및 계육협회에서 이미 시행 :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모든 사업(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R&D, 수급조절, 해외시장 개척, 정책수립 참여 등)은 육계 계열주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한국계육협회 차원에서 시행(...중략)

3. 정부의 정책 파트너는 품목의 실질적인 대표조직이 말아야

- 육계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및 정책 협의에 대한 민간의 파트너는 한국계육협회가 되어야 함
 - 정부 정책수립 및 각종 지원사업, 산업발전을 위한 민관 공동프로젝트 등에 대한 정책협의를 해당 산업의 실질적인 종사자들이 주도적인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이루어져야 함 : 육계는 한국계육협회, 계란은 대한양계협회, 토종닭은 한국토종닭협회
 - 육계의 경우 생산농가의 85% 이상이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계열주체와 생산농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대표조직은 한국계육협회임
 - 닭 관련 산업의 품목별 전문화는 미국 등 축산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를 통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 육계와 산란계는 최종 축산물이 닭고기와 계란으로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생산 및 유통구조가 상이해 각기 전문화되어 있음 : 품목 대표조직도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로 나누어져 활동(...중략)

2010. 3. 15

한국계육협회

육계산업 붕괴시키는 한국계육협회는 즉각 해산하라!

“성숙단계에 이른 육계산업”이란 교묘한 포장을 보며
기반붕괴 지경에까지 이른 실상의 육계산업은 헛구역질 한다.

현실을 여행하다 못해 “자조금이 필요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 단체가 있다. 자칭 생산자 단체라고 주장하는 한국계육협회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계육협회는 육계산업이 1차 산업을 벗어나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자찬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 계열주체가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정작 중추적 역할을 맡았던 생산 농가의 살림살이는 날로 비폐해져 갔다.

원자재가 나빠 사육에 실패해도 전적으로 농가책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품화하여 납품하면 더 좋은 조건의 농가와 비교하여 사육비를 깎았다. 허울 좋은 사육비는 계열화사업 초창기인 20여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와중에도 현상유지를 하고 싶으면 규모를 늘리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역설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농가부채는 안중에도 없다.

지난 3월 15일자 한국계육협회가 발표한 “육계자조금은 불필요하다”라는 분건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언제부터 계열화사업 경영에 육계농가를 참여시켰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육계사육에 참여하는 농가끼리 경쟁시키면서 상대방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조차도 제시하지 않는 계열업체가 아니냐?

육계자조금만 해도 그렇다. 제대로 된 육계계열화사업 시행으로 국내 현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외국사례를 갖다 붙여 억지스런 논리를 펴면서 온갖 방해로 일삼고 있다. 농가가 자조금사업을 시작하여 그나마 암울한 현실에서 탈피코자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어떤 결과치가 그토록 계열업체를 걱정스럽게 만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한국계육협회는 자조금사업을 시행하는 축산단체(소, 돼지 등)는 1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낙후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조금을 시행하는 국가는 후진국이라는 망국적 망언까지 거침없이 내뿜고 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고 맞서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빠져 물불 안가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육계자조금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타 축종의 사례처럼 육계자조금 사업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발전시켜 올바른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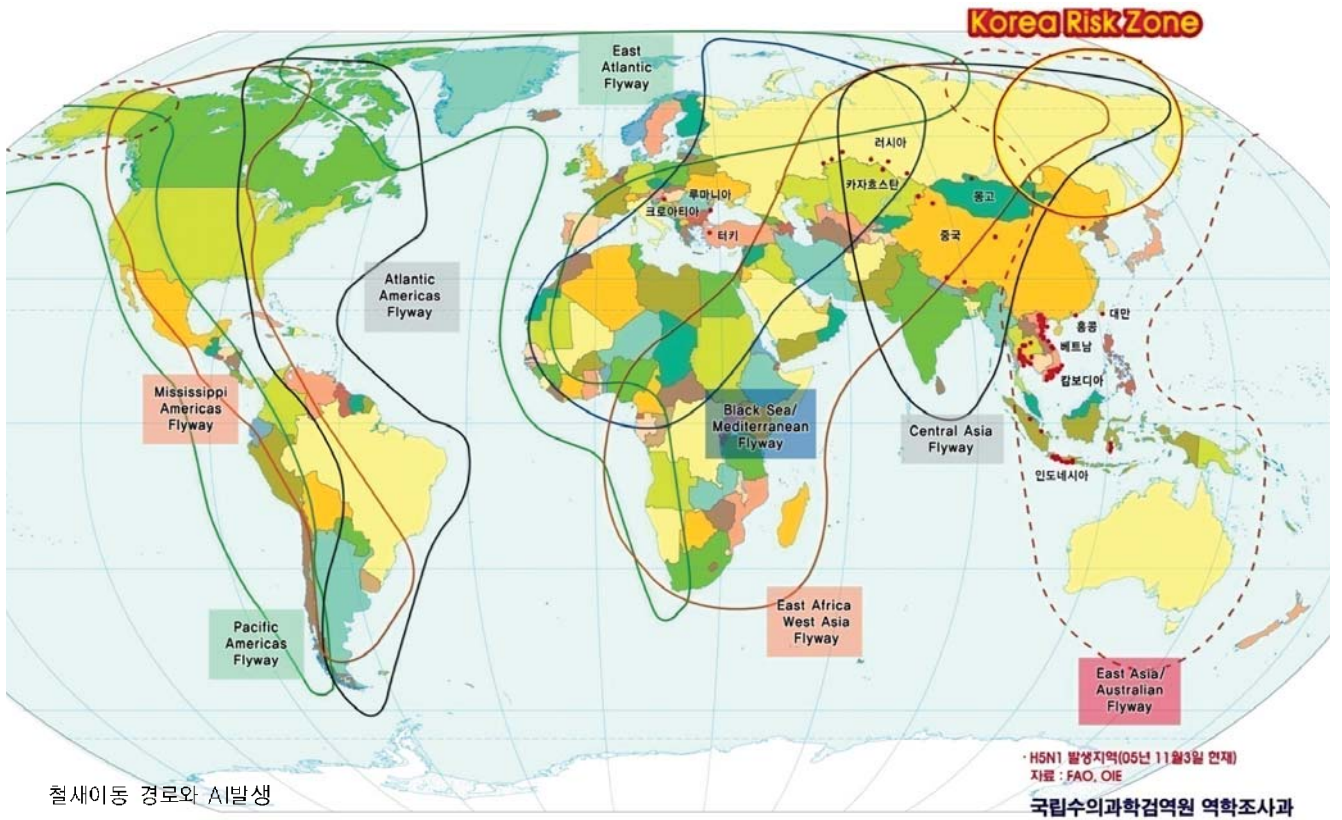
한국계육협회는 비도덕적 기업윤리를 내세워 방대하고 비대해진 계열사의 빼돌려진 대만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한 가공업자 모임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본연의 임부에 충실하고 진정한 육계산업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특히 신량한 생산농가를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회원화하여 생산자단체의 탈을 뒤집어 쓰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농가를 이용하여 기업을 살찌워 보겠다는 알팍한 속내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그동안 육계농가를 소작농 정도도만 치부해왔던 계열사가 이제 와서 농가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숨겨진 음모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아울러 대한양계협회가 언언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계육협회가 생산자 단체라 자칭하고 대표조직을 운운하며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육계산업을 분열시키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 3. 30

(사)대한양계협회



철새이동 경로와 AI발생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AI 재발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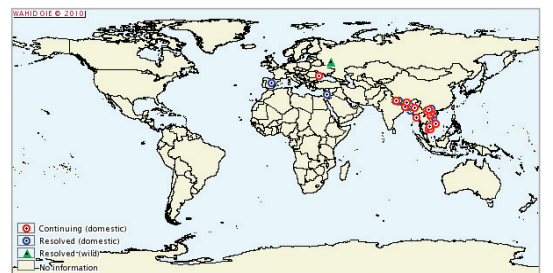
정찬이 메리알코리아 수의사

우리 축산업은 현재 가축의 변종1종 전염병이 타축종에서 발생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의 양계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산업으로 사랑받아오고 있다. 사료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타축종보다 효율적인 에너지활용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때 아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로 인해 상당수의 조류들이 살처분 되었으며, 양계산업은 일순간 경색국면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발 벗고 열심히 일해 극복하고 있다.

국내 AI 발생(3차례)은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AI 발생국가(중국 등)가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9개국이상에서 발생이 보고 되었다.

정부에서는 AI 유입 위험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방역테세 확립을



위한 방역기관별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AI, 발생 위험 최소화를 위한 예찰검사 확대 및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철새 도래시기(10월 중순~12월)에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을 강화(매주 1회 → 3일간격)하고, AI 예찰검사 대상을 확대(철새·오리·닭 → 메추리, 칠면조 등 추가)하였다. 가금 사육농가 등에 대한 철새 도래지 방문금지, 차량 및 방문객 출입통제,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실태 지도·점검, 방역 대상자별 맞춤형 집중홍보 및 AI 발생대비 가상훈련 실시 등

“ 외부위험요인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차단만 한다면 질병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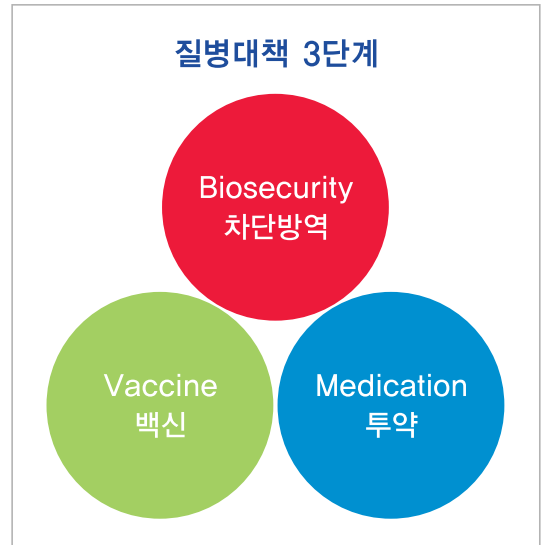
현장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AI 오염 우려가 있는 불법 조류 및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AI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한 탐지견 집중투입 등 전국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차단방역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외부위험요인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차단만 한다면 질병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의 차단방역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하지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한 눈을 팔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에 첫 번째도 방역이요, 두 번째도 방역이요, 세 번째도 방역이다. 차단방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와 내부를 막는 방법인데, 그중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소독이다. 소독은 병원체를 불화화시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AI는 바이러스특성상 일반소독제에 불화화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저항성이 비교적 약한 바이러스로 오염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질병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주기별로 반복되는 계절별 생산성의 높고 낮음은 생산계획에도 차질을 보이게 한다. 전체의 생산 흐름을 볼 때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는 10~11월, 최저의 생산성을 보이는 3~5월 이런 주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사실이다. 생산의 흐름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흐름이 멈춘다면 부패되고 썩는 것은 기본원리이기에 모든 것은 계속 흐르고 있다.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를 알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이기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였다. 질병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답이 없



는 싸움을 현재의 우리, 과거의 우리, 미래의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기울였고,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답은 있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을 하였지만 생산은 흐름이다. 흐름에 과부하를 걸지 않는다면... 그리고 과부하가 누적되지 않는다면, 질병 및 생산성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요소가 합쳐져서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흐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흐름에서 온도에 대한 대처능력, 공기질에 대한 대처, 먹이에 대한 대처 등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리고, 한 분야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가며 발전할 때 질병억제 및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진다. 중요한 사실은 생산과잉이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생산성향상도 무의미해질 때가 많다. 이른바 숫자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 적절한 숫자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내기위한 체제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질병 또한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도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키우는 한 병원체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차단방역과 소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I와 같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병들이 최소화, 아니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과 소독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봄 소풍에 어울리는 닭고기 요리

새콤달콤 매콤한 닭강정 & 닭고기 찜

어느덧 봄꽃이 만발하는 4월을 맞이했다. 꽃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따뜻한 봄바람과 청명한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런 날 하루종일 집안에만 있다면 가족들에게 웬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참에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둘러메고 소풍을 떠나 봄의 향기를 흠뻑 느끼는 것이 어떨는지. 이번호에서는 봄 소풍 도시락에 어울릴 만한 닭 요리를 소개해 본다.

새콤달콤 매콤한 닭강정

재료

닭가슴살 500g, 당근 1/3개, 오이 1/3개, 양파 1/3개, 달걀 1개, 청주 1큰술, 소금, 후추, 녹말, 식용유, 소스(고춧가루 1큰술, 설탕 4큰술, 분말육수 1작은술, 식초 3큰술, 케첩 4큰술, 물 1/2컵, 소금 1작은술)

만들기

- 1 닭고기는 뼈를 발라 주거나 닭가슴살을 이용하면 된다. 준비된 닭살을 한입 크기로 썰어 소금, 후추, 청주를 뿌려 밑간을 한다.
- 2 ①의 닭고기에 달걀과 녹말을 넣고 섞어 반죽한다.
- 3 식용유가 170℃로 끓으면 ②의 닭고기를 넣어 두 번 가량 튀긴다.
- 4 양파, 당근, 오이는 작게 썰어 놓는다.
- 5 고춧가루, 설탕, 식초, 케첩, 물, 소금을 섞어 소스를 만든다.
- 6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④의 채소를 볶다가 ⑤의 소스를 붓고 끓여 간을 맞추고 튀긴 닭고기를 넣어 버무리 접시에 담는다.



닭고기 찜

재료

닭(작은 것) 1마리, 오이 1개, 당근 1/2개, 달걀 2개, 팽이버섯 1봉, 무순 20g, 맛살 70g, 라이스페이퍼, 닭 삶는 재료(마늘, 대파, 소금, 청주), 닭살 양념(후추, 참기름, 맛소금), 겨자소스(견 겨자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배즙 2큰술, 소금 약간)

만들기

- 1 닭은 깨끗이 손질하여 끓는 물에 넣고 통마늘, 대파, 청주, 소금을 넣고 삶아 건져 식으면 살만 떼어 찢어 소금, 참기름, 후추를 넣고 버무리 놓는다.
- 2 당근, 오이(씨 제거)는 채 썰어 전자레인지에 15~20초정도 각각 돌려 물기를 짜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한다.
- 3 팽이버섯은 밑동을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소금으로 간한다.
- 4 달걀은 황·백 지단을 부쳐 채 썬다. 무순은 냉수에 담갔다 건진다.
- 5 맛살은 5cm 길이로 가늘게 찢어 놓는다.
- 6 겨자소스는 겨자, 식초, 설탕, 배즙, 소금을 섞어 소스를 만든다.
- 7 뜨거운 물에 살짝 넣어 건진 라이스페이퍼에 위에 준비한 닭고기와 재료를 넣고 말아 찜 후 겨자소스와 함께 낸다.



전통 꼭두닭 등 세계 닭 문화를 한눈에

서울 닭 문화관



닭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 생활해 왔다. 옛 조상들은 새벽 닭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했고 뒷마당에서 키우는 닭들은 아이들의 좋은 벗이 되어주었으며, 사람이 죽으면 닭이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믿어 꼭두닭이라는 닭 모양의 나무 장식을 상여에 올리곤 했다. 이쯤 되면 닭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일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가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닭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닭 박물관인 '서울 닭 문화관'을 볼 수 있다. 서울 닭 문화관은 지난 2006년 12월 개관되었는데 이처럼 닭을 주제로 한 문화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서울 닭 문화관은 1층 테마전시장과 2층 상설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테마전시장에서는 1년에 4번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날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와 세계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공존'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각국의 닭 공예품을 비롯해 닭을 형상화한 장신구, 닭 그림, 닭 우표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세계 각국의 닭 그림이 들어있는 우표와 엽서, 카드 등은 그 나라의 문화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콘텐츠다. 따라서 1층의 테마 전시장은 닭이라는 단순한 아이콘만으로도 다양한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2층은 우리나라 고유의 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상설 전시장으로, 닭을 소재로 한 민화와 형형색색의 꼭두닭 등 여러 가지 전통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계관도는 옛 조상들이 닭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다. 부귀를 상징하는 보란과 수탉의 모습을 그린 계관도는 부귀공명을 염원하고 닭과 맨드라미가 함께 있는 것은 입신출세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 조선시대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둔 선비들은 계관도를 서재에 걸고 학문에 정진했으며 장원급제한 선비에게는 닭을 선물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날 손수 안내를 맡아 진질한 설명을 들려준 김초강 관장은 "우리 선조들은 닭을 극락왕생의 인도자이자 망자를 외롭지 않게 지켜 주는 동물로 생각해 상여 위에 반드시 꼭두닭을 올렸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의 닭에 대한 인식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많이 왜곡된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인 꼭두닭이 과거를 되짚어 보고 현재를 미뤄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전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2번지 ☎ 02-763-9995
- **홈페이지** www.kokodac.com
- **관람 안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 및 명절 연휴 휴관 / 어른 3,000원 · 어린이 2,000원

해외양계



노인성 치매 예방하려면 적색육보다 닭고기 섭취하세요

미국 뉴욕시민 2천148명 조사 결과
치매 발병률 38% 낮아

채소와 닭고기 등 백색육을 먹은 사람이 적색육 등을 먹은 사람보다 노인성 치매 위험률이 40% 가까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의학 소식 전문통신 헬스데이 뉴스는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센터 신경과전문의 니콜라오스 스카르메아스(Nikolaos Scarmeas) 박사가 65세 이상 뉴욕 시민 2천148명을 대상으로 평균 4년에 걸쳐 식습관을 조사하고 1.5년 보다 치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닭고기, 올리브기름을 이용한 샐러드드레싱, 견과류, 생선, 토마토, 십자화과 채소(브로콜리 등), 검은잎 또는 푸른잎 채소 등을 가장 많이 먹고, 적색육, 장기육(organ meat), 고지방 낙농식품, 버터를 가장 적게 먹은 사람이 그 반대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에 비해 치매발생률이 평균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인종, 유전적 요인, 흡연, 체



중, 질병 등 치매와 관련된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것이다.

스카르메아스 박사는 이 같은 결과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체의 모든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뇌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특히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음식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물질, 엽산 등은 뇌를 직접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올해 닭고기 수출 주춤 예상 58억3천만 파운드... 전년 대비 15% 감소



미국의 닭고기 수출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세계농업 제114호(2010년 2월)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009년 닭고기 수출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68억4천만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수출량이 58억3천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은 TRQ(관세할당제) 물량 감소로 대러시아 수출이 11% 줄어들었고 우크라이나로의 수출도 5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의 수출량 감소는 대멕시코 수출이 크게 늘고 중국·홍콩시장으로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여 일부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쿠바로 수출된 물량은 2008년보다 1% 증가하였지만, 쿠바는 미국산 닭고기 제품의 4번째로 큰 시장이어서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닭고기 수출량은 58억3천만 파운드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5% 감소하고, 2008년보다는 16%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통상마찰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국가로의 수출 감소는 달러 약세에 따른 여타 국가들로의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달용 치킨도 8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식품부, 제품의 유통 및 소비 성향에
큰 변화 예상



오는 8월부터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8월 5일부터 배달용 치킨과 막걸리, 식용 소금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닭고기·쇠고기·돼지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오리고기와 흑연소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용 치킨과 막걸리, 소금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면 이들 제품의 유통과 소비 성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충남지역, 닭고기 홍콩수출 재개

전라남도 와 충청남도 닭고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전남 및 충남지역 닭고기·오리고기도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남과 충남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홍콩정부가 닭고기와 오리



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오리고기의 홍콩 수출을 재개하기 위하여 국내 방역조치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홍콩 측에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수출을 다시 재개할 있도록 됐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AI 유입방지 위해 철새 예찰검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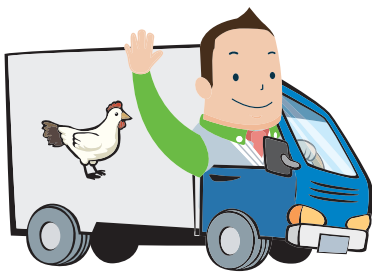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최근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D)의 국내유입방지 및 조기검색을 위해 철새 회귀경로 예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로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3월 초부터 오는 5월말까지 홍도·흑산도를 통과하는 철새 가운데 재갈매기·흰뺨검둥오리·빨논병아리·청둥오리 등 AI 예찰대상 야생조류 31종 위주의 분변채취와 사체를 수거하여 검사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송부하고 있다.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처리절차

-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원/수당)
- 육계자조금의 자원 : 농가 거출금(50%) + 정부 보조(50%)
- 농가 직접 납부시 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출하

육계,삼계,재래닭,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법제11조제3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에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수납익월 20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